

코로나 위기 '상생 기반' 다지는 기회로...

말산업 전체 피해액 6조5000억원
기승횟수 상한제·긴급자금 투입 등
소득·활동 안정 위해 대책 제도 개선
큰 위기 속 '경마공동체' 노력 빛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마사회는 매출 감소 탓에 적잖은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경마 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가량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국산 경주마시장 선순환 체계 강화

경주마는 경마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참여 주체라는 인식 하에 시장 침체로 피해 받는 국산마를 최소화하고 경주퇴역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국산 경주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산마 우대 경매제도를 2021년에 한정해 시행한다. 수입 경주마들의 경매장 입사를 제한하고, 올해 판매되지 못한 국산 2세마의 입사기한을 연장한다. 국산마·경매마 한정 경주를 확대 편성해 국산마 투자수요를 견인한다.

경주마로서 활약을 마친 퇴역마들을 위한 할로도 확대했다. 경주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한 권한은 소유자인 마주에게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국내 유일의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해 '경주퇴역마 관리 체계 개선계획'을 세웠다.

용도나 소재지가 불분명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주퇴역마를 대상으로 승용조건 등 기타 용도로 전환해 '제2의 마생'을 도왔다.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주마 관계자와 한국마사회가 힘을 합쳐 '경주퇴역마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조성을 시작했으며, 점진적으로 기금을 늘려 연간 300두 이상의 경주퇴역마를 승용마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2월 23일 경마를 중단한 후, 2020년 대부분을 고객 없이 보내는 홍역을 치렀다. 이로 인해 연말 기준 한국마사회의 매출을 포함한 말산업 전체 피해액은 6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큰 위기에 맞서 경마 공동체 상생을 위한 제도 기반을 분주히 마련한 경마산업의 울해를 짚어 본다.

●경주마 관계자 소득·활동 안정성 강화

한국마사회는 경주마관계자들의 소득과 활동에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기승료 비중을 높이는 등 경마상금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인기 기수에 출전기회가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승횟수 상한제도'를 신설했다. 상금 편중현상을 완화해 경주마 관계자들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년여 간 시행되며 경주마 관계자들의 소득양분화 현상을 완화했다. 현재 수득액 최하위 기수라 할지라도 총실한 조교훈련과 월 8회의 기승횟수를 충족할 경우, 조교료와 기승료를 포함해 월평균 소득 최소 350만 원 이상 보장되는 구조다.

직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기수면허갱신제도 역시 보완했다. 당초 연간 기승횟수가 전체 평균 기승횟수의 10% 미만일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제도개선으로 조교전문기수들은 출전횟수의 부담감을 덜고, 본인의 목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조교전문기수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지책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중단되면 경주마 관계자들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마사회는 3월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 자금 200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했다. 그러나 단순 긴급 자금으로는 경주마 관계자들의 경영난이 해결되지 않는다. 2월 말

부터 계속된 경매중단으로 경주마 관계자들은 6월에 이르기 소득절벽에 몰렸다. 한국마사회 역시 고객 입장 중단으로 당시 2조 매출 손실에 당면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상금 투입을 통한 말산업 정상화를 위해 6월 18일부터 '무고객 경마'를 단행했다. 현행법상 온라인 마권 발매가 불가해 기대 수입이 전무한 상황에서 말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다. 무고객 경마를 포함해 연말까지 총 1600억 원이 경마상금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2월 23일 이후 매출이 거의 없었지만, 하루 수천억 원 대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유지와 경주마 관계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연초 예정했던 상금 집행액의 70%

마사회 탁구단 일일 강사로 재능기부



한국마사회 탁구단 재능기부 교실이 11월 인건 청라 훈련장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렸다. 한국마사회 탁구단은 매년 관공서, 문화공감센터 등에서 생활 탁구인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인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과 주세혁 선수 등이 참여해 자제교정, 기본동작, 기술시연 등의 원포인트 레슨을 실시했다. 특히 참가자 전원의 동작을 1대 1로 코칭하며 개개인이 사전에 요청한 실전 노하우를 전달했고, 즉석 시인회까지 열었다. 탁구단 재능기부 교실은 영상 콘텐츠로도 제작돼 마사회TV를 통해 11일 업로드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마사회 탁구단 서효원 선수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주최하는 예체능 특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모금 캠페인에 참여했다. 탁구 국가대표를 꿈꾸는 14세 소녀를 위해 응원메시지와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언택트 걸음 기부'로 김장김치 기부

한국마사회 임직원이 연말연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언택트 걸음기부 캠페인을 시행해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말과 함께, 따뜻한 발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1걸음 당 기부금 1원을 매칭한다. 임직원이 5000만 보를 달성하면, 저소득 취약계층 1000여 세대에 총 50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기부한다. 임직원의 활발한 참여에 힘입어 캠페인 시작 18일 차인 지난 3일에 5000만 보의 목표 걸음을 조기 달성했다. 임직원의 따뜻한 걸음으로 확보한 김장김치는 12월 중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1000여 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매시장 활성화 위해 경매유통장려금 확대

한국마사회는 경매시행 중단으로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경매 시장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 경주마 경기 수 확대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거래·유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생산능자들의 초기 사양 부담이 큰 1세마들의 판매 장려를 위해 경매유통장려금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했다. 또한 육성 성과와 경매 낙찰 여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경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조정했다. 정용운 기자

말산업 공공데이터 개방 100% 완료

한국마사회, 디지털 뉴딜 쟁점음
민간 스타트업과 접촉점도 늘려가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올해 말산업 공공데이터 개방을 100% 완료하며 민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에 있어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은 크다. 한국마사회는 말산

업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으로 '데이터랩' 수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이용 활성화와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활용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80개에 이어 올해는 전년 대비 약 8배가 증가한 634개의 데이터 개방을 완료해 중장기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에 근거한 100% 개방을 조기 달성했다. 또한 데이터 전제를 오픈 플랫폼으로 개방해 모바일 앱이나 리포트 등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공개 민간 활용도를 높였다.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과 관련한 전문 컨설팅을 시행해 데이터 전수 조사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의 데이터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도 실시했다. 또한 이미 데이터를 활용했던 개인이나 사업체에게 얼마나 활용도가 있었는지, 만족도는 어느 정도 인지 등을 조사하고 외부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시행해 의견을 청취했다.

민간 데이터 활용도 크게 증가했다. 정부 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한 말산

업 관련 데이터 요청(호출) 건수는 약 90만 건에 이르며, 실제 데이터 활용 건 수(API 적용, 앱·웹·실체 표출 등) 역시 전년 대비 20% 늘어났다.

민간 스타트업과의 접촉점도 늘러가고 있다. 올해 농식품부 산하기관들이 참여한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말타' 서비스와의 협력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말타' 서비스는 승마장 위치와 마필·코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예약,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플랫폼이다. 한국마사회는 해당 사업 홍보 및 맞춤형 데이터 제공, 멘토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용운 기자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YouTube '성경 경제기부학' (1~10부) 시청 후 문의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냐?**
무식한 교유부야! 등신 학부모야! 철밥통 관료들야!
씩을 때로 씹어 줌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야

이생망, 헬조선, 홀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알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든 모두 선착순
자동부자 우분투 기본소득 신 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순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석인 목사 010-4277-0691
- 법무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조 010-6462-6712 / 역삼 황비 010-5647-5428 / 김석우 정국장 010-7653-5373 / 이주지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영배 010-8290-8801 / 평영성 010-3274-5289
- 부산 김성주 010-9852-6452 / 백상석 010-7309-1000 / 민명숙 010-5118-5263 / 김한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미 010-4424-7161 / 수원민 010-4741-7008
- 인천 조민호 010-7374-4111 / 서재은 010-8770-2935 ● 대전 김찬구 010-8029-0059 / 김용환 010-3742-5998 / 전남민 010-2391-8259 ● 대구 권영희 010-4946-4950
-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태수 010-4830-1810 ● 강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원 010-5769-0532 ● 전남 김혜덕 010-6258-3510 / 우영숙 010-8804-3424
- 인천 박원표 010-3227-0993 / 주안 홍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호준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이현정 010-4707-2659
- 한성희 010-5177-9479 ● 여주 장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황인희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김연태 010-9005-3616
- 경기 남부 황베드로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9983 ● 평강 고영필 010-5463-6952 ● 중국 송능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해외이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 (주)
Hlubuntu 1644-6733